

관람표에 반영된 색깔

어느해 봄날 건설중에 있는 한 봉사건물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온갖 편의봉사시설들이 그뿐하게 갖추어진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건설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아직 미완성된 계단식관람석중심에 서시였을 때였다.

한 일군이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 관람석을 가리켜드리며 관람석에 구획별로 색깔이 다른 의자를 놓으려 한다고 말씀올리였다.

구획마다 놓여있는 의자들을 유심히 살펴보시던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어느한 체육관에 놓은 의자도 색깔이 구획별로 다르다고 하시며 착상을 지지해주시고는 잠시 무슨 생각을 하시는듯 말씀을 끊으시였다.

이윽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관람홀에 구획별로 색깔이 다른 의자를 놓겠다고 하는데 관람표의 색깔도 의자의 색깔과 같이 만들어주면 관람자들이 자기 자리를 찾아가기 편리할것이라고 하시였다.